

전두환 손자 “할아버지는 학살자이자 범죄자”

손자 A씨, SNS에 폭로성 글 게시

5·18민주화운동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씨의 손자가 SNS에 자신의 할아버지를 ‘학살자’라고 규정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전두환씨가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전씨 일가가 호위호식하고 있다고 폭로하는 영상과 사진까지 올려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접한 오월단체 관계자와 지역민들은 생존해 있는 5·18가해자들이 이제라도 진실의 입을 열어 야 하며, 전씨 일가에 대한 재산을 끝까지 추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씨의 친손자라고 밝힌 A씨는 SNS(인스타그램·유튜브)에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가족에 대해 폭로하는 영상과 글을 잇따라 게시했다. 15일에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A씨는 영상에서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다”라고 했다.

다른 영상에서는 “아버지(전재용)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검은 돈을 사용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며 “이제 곧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도망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있다. 법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은 아버지이자 전두환씨의 3남인 전재만씨에 대해서도 “(전재만씨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전씨 일가,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호위호식 폭로 “부친은 곧 미국 시민권 얻어 법의 심판서 도망치려 해” 오월 단체 “끝까지 재산 추징…가해자들 진실의 입 열라”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와이너리는 전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 돈의 냄새가 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연희동 자택이라고 올린 영상에는 이순자씨로 추정되는 노년 여성이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장면도 담겨 있다.

A씨는 전두환씨 손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상속포기심판 청구 서류 등 각종 서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1998년 8월 2일 전두환씨와 A씨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15일 라이브 방송에서 A씨는 “제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은 것보다 5·18사태에서 죽은 자들, 불구가 된 자들, 그분들의 가족 분들과 자녀 분들이 받았을 정신질환(고통)의 크기가 더 크다”며 “저희들이 리조트에서 호텔에서, 스크린골프장에서, 보내라고 그분들이 흘린 피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두환씨의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재용씨 일가와와는 교류가 없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다. 연희동 자택 안에 골프연습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전두환씨의 차남이자 A씨의 아버지인 전재용씨는 광주일보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자식이 아픈지도 몰랐다. 제대로 돌보지 못한 애비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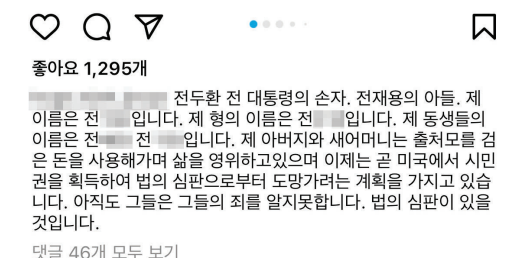
A씨가 올린 게시글이 확산되자 이를 접한 오월단체와 지역민들은 환영하지만, 남은 과제들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신상아(22)씨는 “가족으로 양심선언을 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을텐데 큰 용기를 냈다고 생각한다”면서 “광주 사람으로서 통쾌하기도 하고 조금이나마 억울한 마음이 풀린 것 같다”고 말했다.

생존해 있는 5·18 책임자들이 진실의 입을 열 때가 됐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황일봉 5·18민주유공자 부상자회장은 “전두환씨가 사망했지만 그 휘하에 살아있는 책임자들이 이제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도 “역사의 죄인은 후손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면서 “남아있는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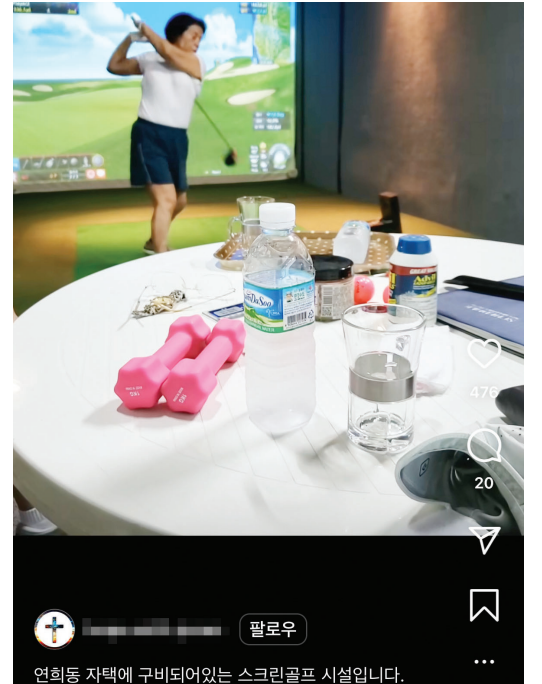


전두환씨 손자라고 밝힌 A씨가 최근 SNS에 과거 전두환씨와 찍은 사진(왼쪽)과 전씨 일가가 살고 있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내부의 사진을 올렸다.

·18책임자들이 A씨를 반면교사 삼아 자신들의 과오를 덮고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씨 일가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전두환의 가족이 어떠한 계기로 이러한 입장을 밝히는 지는



연희동 자택에 구비되어있는 스크린골프 시설입니다. (A씨 SNS 캡처)

모르겠지만, 공식석상에 나타나 제대로 사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면서 “43년 동안 전씨 일가가 호의 호식할 수 있도록 축재된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조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갈등만 키우는 5·18부상자회

광주시에 5·18 행사위 예산 중단 요청하고 정치인들 ‘5·18 망언’엔 규탄 성명조차 없어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부상자회)가 광주시에 ‘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 행사위원회’(행사위)에 지원되는 예산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김광동 진실화해추진위원회(진실추진위) 위원장의 5·18 왜곡 망언에도 규탄 성명조차 내지 않고 자신들의 행사만 치르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상자회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상자회는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행사위에 배정하는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이 공문에는 “위 관련 근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96조)에 의거 법률적으로 보장된 공법단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귀 기관(광주시)에서 관리·감독하는 5·18 관련 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법률적 근거에 의거 전면중단을 요청하니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광주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보

조금은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부상자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상자회의 요청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법단체인 5·18부상자회와 5·18공모자회가 깊어진 갈등의 골을 해결하기 보다는 예산 중단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보수 정치인들의 잇따른 5·18 망언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목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있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광동 위원장의 5·18 정신 훼손 발언이 알려지자 같은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유족회는 단독으로 사죄와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에 대해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은 “망언에 대한 비판 목소리보다는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곧 이에 대한 성명서를 낼 것”이라면서 “5·18행사위 예산 중지 요청은 행사위가 실제적인 진상규명보다는 추상적인 광주정신만 외치고 있는 점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 내린 결정이다”고 해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봄이 꽃들 짝 낮 최고기온이 20도를 웃도를 날씨를 보인 15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교정에 목련이 만개했다. /최현배 기자choi@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 급증 광주 150건...전년비 3배 육박

항생제 내성균 일종인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 균종(CRE) 감염증 환자가 급증해 보건 당국이 예방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올해 CRE 감염증 신고 건수는 1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건)보다 172.7% 늘었다.

CRE 감염증은 2021년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다음으로 많이 신고된 법정 감염병이다.

2017년에 81건이었으나 2018년 132건, 2019년 182건, 2020년 381건, 2021년 343건, 지난해 48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70세 이상의 비중이 전체의 70%를 넘는다.

CRE 감염증은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오염된 기구, 물품, 환경 등을 통해 전파되며 주로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 접촉을 통해 발생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